



법무부, '과학·기술 우수 외국 인력 3년 만에 영주권 취득 가능'

법무부는 올해부터 '과학·기술 우수 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제도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기존엔 6년 이상 걸린 절차를 3년으로 단축하고 단계도 완화한다. 외국의 우수한 과학·기술 분야 인재가 우리나라 영주권과 국적을 빠르게 취득해 정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이공계 특성화 기관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이 총장 추천을 받으면 '거주 자격'을 준다고 설명했다. 연구경력·실적 등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영주권'을 주며, 연구 실적이 우수하면 국적심의위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한다.

기존에는 국내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우수 외국 인력은 4~5단계를 거쳐

야 우리나라 영주권이나 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다. 통상 6년 이상 걸렸다고 한다. 올해부터 패스트트랙이 시행되면 3단계 절차(3년)를 거치면 영주권·국적을 얻을 수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과학·기술 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을 비롯해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외국 인재들이 영주·귀화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방안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법무부〉